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5, pp. 15-21,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5.015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조창호
명지전문대 강사

The Effect of Job Training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Vocational College Youth: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hang-Ho Cho
Lecturer, Myongji Colleg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4개의 직업전문학교에서 편의표집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386명이며, 통계처리에는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업훈련만족도는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분매개의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아지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진로태도성숙도 역시 향상되어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청소년, 직업훈련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satisfaction of youths in job training is effectiv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mediated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86 students who were sampled from four vocational schools in Seoul and SPSS 21.0 was used for statistical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ob training satisfac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attitude maturity. Seco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attitude maturity.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training satisfac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youth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nd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vocational training in vocational schools, the higher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also the higher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higher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Key Words : Youth, Job training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Corresponding Author : Chang-Ho Cho(vuddks365@naver.com)
Received November 13, 2020 Revised May 7, 2021
Accepted May 20,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의 진로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사회구성원이며, 예비 직업인으로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한 대상이다[1]. 그리고 중소기업기술을 습득한 인적자원은 조직성과를 긍정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2, 3]. 이는 인적자원인 청소년을 취업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 만족도가 상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시장의 위축 되어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들이 겪는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도 점차 커지고 있다[4]. 따라서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진로교육과 직업훈련은 미래에 자신의 꿈을 현실로 실행하는 주요한 활동이고 또한 일련의 교육과 훈련 활동들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진로 선택을 앞둔 대학생이 경험하는 청년실업은 대학생 자신이 진로 결정 과업에 관한 확신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을 통해 진로태도의 성숙이 필요하다. 이기학과 한종철의 연구에서 진로태도 정도가 성숙한 사람은 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 결정에 확신이 있고, 외적인 가치보다 내적인 가치를 통해 진로를 선택하며,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나 준비도가 높고 타인보다 자신의 기준을 따라 진로를 결정한다고 하였다[5]. 진로 결정에 관련된 과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진로결정 상황에서 효능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의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를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원에서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8].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 생활 전반의 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9].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이 각각 변인 간의 관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거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모형을 만들고, 직업전문(훈련)학교 청소년의 직업교육과 진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문제

연구문제1.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 진로자기결정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상관관계는 있는가 ?

연구문제2.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에서 진로자기결정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청소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숙정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향상은 대학 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제언한다[10]. 주효정은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미용전공 재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학습만족도,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이라고 밝힌다[11].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학습만족도와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학습만족도, 진로결정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11]. 윤경숙은 자기효능감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며,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재학생은 어려운 과업을 회피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재학생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강조한다[12]. 윤갑정과 차정주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진로스트레스가 낮은 예비유아교사일수록 학과에 더욱 만족하며,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인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목표를 설정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과에 더욱 만족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9]. 그 이유로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학과 생활 전반적인 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9].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직업훈련만족도 관련 변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2.2 청소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청소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13], 진로태도성숙[7] 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정적인 연관성을 갖고, 진로태도성숙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이은경과 이혜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영역 가운데 목표선택 관련 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8]. 김명숙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간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는데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14]. 황혜리와 유수정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15].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3 청소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청소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이창향은 울산에 거주하는 40대~60대 이하 경력단절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하였다[16]. 그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 중 재취업 준비 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참여치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6]. 신희경과 김우영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이 진로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 김덕희의 연구에서는 진로 수업을 수강한 학생의 진로 성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진솔의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경험은 청소년들의 진로 역량과 연계성이 없었던 것과 반대로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진로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임이 확인되었다[19]. 조장희 연구에서는 진로교육만족도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청소년들의 직업훈련만족도 또는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판단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직업전문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35일 동안 설문지를 최종 4개 직업전문학교에서 각각 100부 총 400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잘못 응답한 14부를 제외한 386부를 조사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표집의 편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편의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전문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중심이 된다.

3.2 측정도구

3.2.1 직업훈련만족도

직업훈련의 만족도는 훈련기관과 훈련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훈련생은 직업훈련의 만족도 정도에 따라 반영된다. 반대로 훈련기관은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업훈련만족도는 백영숙·이희정이 개발한 직업훈련 만족도 척도를 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다[21].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신뢰도 지수는 .862이다.

3.2.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Betz와 Voyten이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은경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다{22, 23]. 그리고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계획수립,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문제해결, 목표설정과 같은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 전체점수이다. 전체점수가 높으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신뢰도 지수는 .931이다.

3.2.3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척도는 이기학과 한종철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5]. 이 척도는 진로태도성숙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현실성 차원, 준비성 차원, 결정성 차원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뉘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신뢰도 지수는 .914이다.

3.3 자료분석방법

연구에 사용된 자료처리는 SPSS 21.0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05이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은 변인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2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소벨검정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386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249명(64.5%), 여성이 137명(35.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년을 살펴보면, 3학년이 247명(64%), 1학년이 101명(26.2%), 2학년이 38명(9.8%)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ivision		n	%
Gender	male	249	64.5
	female	137	35.5
	Sum	386	100.0
Grade	first grade	101	26.2
	sophomore	38	9.8
	third grade	247	64.0
	Sum	386	100.0

4.2 변인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Division	Job training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Job training satisfaction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567***	1	
Career Attitude Maturity	.451***	.565***	1

****p<.001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다.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은 독립변인인 직업훈련만족도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직업훈련만족도는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r=.451, p<.001).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r=.565, p<.001).

4.3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3.1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직업훈련만족도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510,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직업훈련만족도가 종속변인인 진로탐색성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341, p<.001).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력(B=.382,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함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Training Satisfac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division	B	R^2	F
Step 1 Job training satisfaction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510	.322	182.591***
Step 2 Job training satisfaction → Career Attitude Maturity	.341	.204	98.408***
Step 3 Job training satisfaction → Career Attitude Maturity	.146	.204	98.408***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Attitude Maturity	.382	.344	100.804***

***p<.001

4.3.2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의 Sobel검정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정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이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임이 증명되었다(z=7.529, p<.001). 직업훈련만족가 높을수록(B=.5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져서 진로태도성숙에 높아지며, 직업훈련만족도

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95(*B*=.510x .382=.195)이다.

Table 4. Sobel Tes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with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s Mediators of Job Training Satisfaction

division	*B*	*SE*	*z*	*p*
Job training satisfaction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510	.038	7.529***	.00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Attitude Maturity	.382	.042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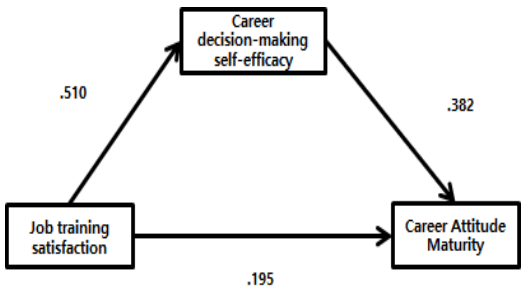

Fig. 1. The Effects of Job Training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through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5. 논의 및 제언

5.1 논의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업훈련만족도는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진솔[19]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기학과 이학주[7]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분매개의 효과가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아지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윤갑정과 차정주[9]의 연구 결과와 같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이기학과 이학주[7]의 연구 결과와 같다.

5.2 제언

본 연구의 정책적인 제언과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근로청소년이나, 직업훈련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진로교육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업전문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진행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직업훈련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요인과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직업훈련에 참여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만족도를 진단하고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할 수 있는 장도 필요하다.

셋째, 직업훈련만족도가 향상이 되었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 참여한 청소년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진단하고 결과를 가지고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졌으면 그다음 세 번째 단계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장과 환경이 필요하다.

다섯째, 진로태도성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직업훈련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임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진로태도성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파악하여 구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S. Y. Kim. (2017). The Effect of the Vocational Training Satisfaction of Youth on their Career Adaptability to the Small Business. *Convergence Society for SMB, 7(2),* 131-136.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2.131

[2] K. I. Kim. (2016). A Model of the influence of IMS operation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6(1),* 1-5. DOI : 10.22156/CS4SMB.2016.6.1.001

[3] S. C. Choi, J. S. Lee, S. Y. Sim, J. H. Lee & J. H. Park. (2017).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on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Convergence Society for SMB, 7(1),* 1-9.
DOI: 10.22156/cs4smb.2016.6.6.1.001

[4] J. H. Lee. (2017).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areer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Learners'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Learning : Focusing on Vocational Colleges of Academic Credit Bank System in majors of Fashion. Lifelong Education HRD Track. Baekseok University.

[5] K. H. Lee & J. C. Han.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Varial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1),* 167-189.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9239

[6] B. J. Dik., R. D. Duffy & B. M. Eldridge. (2009). Calling and vocation in career counseling: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meaningful work.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 625-632.

[7] K. H. Lee & H. J. Lee.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9276

[8] E. K. Lea & H. S. Lee. (2002).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Self - Efficacy Upon the Career Attitude and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14(1),* 109-12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9341

[9] G. J. Yoon & J. J. Cha. (2015).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a Sense of Calling, areer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an Academic Departmen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6(4),* 567-587.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54406

[10] S. J. Lee. (2012). The Effect of Psychological Basic Needs of College Women in Korea on Career Decision Making Efficacy Mediated by Career Stress. *The Journal of Asian Women,. 51(1),* 103-13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78759

[11] H. J. Joo. (2012). A Study of Class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by the Self-Efficacy of Vocational School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ttp://www.riss.kr.proxy.chongshin.ac.kr:8080/link?id=T13054397

[12] K. S. Yun.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Related to Persistence Intention.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http://www.riss.kr.proxy.chongshin.ac.kr:8080/link?id=T13420803

[13] M. J. Kim. (2006). The Effect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ttp://www.riss.kr.proxy.chongshin.ac.kr:8080/link?id=T10527848

[14] M. S. Kim. (2008).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ystem, Perfection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http://www.riss.kr.proxy.chongshin.ac.kr:8080/link?id=T11533623

[15] H. R. Hwang & S. J. Ryu.(2009).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Barrier,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piritual Well-being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8,* 355-38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63594

[16] C. H. Lee.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Re-Entry Preparation Programs Which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r Middleaged Women with Discontinued Employment.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yungsung University.
http://www.riss.kr.proxy.chongshin.ac.kr:8080/link?id=T13391020

[17] H. K. Shin & W. Y. Kim. (2005). A Study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Its Decision-Related Motiv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Rol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Family Backgrounds and Schoo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9(1),* 47-83.
http://www.riss.kr.proxy.chongshin.ac.kr:8080/link?id=A76522589

[18] D. H. Kim. (2007). The Effect of Learning Program to Understand the Result of STRONG Interest Inventory on the Attitude of Career Maturity of a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http://www.riss.kr.proxy.chongshin.ac.kr:8080/link?id=T11005832

[19] J. S. Lee. (2013).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Focusing on the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the Types of High Schools. Dep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http://www.riss.kr.proxy.chongshin.ac.kr:8080/link?id

=T13128791

[20] J. H. JO. (2013). Effects of Learning through Type-based, Career Exploration Education on Future Career Education in a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Depar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angmyung University. http://www.riss.kr.proxy.chongshin.ac.kr:8080/link?id=T13152082

[21] Y. S. Baek & H. J. Lee. (2011). The School Maladjustment Being Calibrated to Maturity in Youth Job Training and Career Research.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23.* 91-110. http://www.riss.kr.proxy.chongshin.ac.kr:8080/link?id=A82756777

[22] N. E. Betz, & K. K. Voyten.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23] E. K. Lea. (2001).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Dept.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http://www.riss.kr.proxy.chongshin.ac.kr:8080/link?id=T7991288

조 창 호(Chang-ho Cho) [정회원]

· 2011년 8월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박사)
· 2011년 ~ 2016년 : 청소년학과 강의
· 2016년 8월 ~ 2020년 2월 : 총신대학교 총신인재개발센터 책임연구원
· 총신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강의전담
· 2021년 3월 ~ 2021년 2월 :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 학과 시간강사
· 2019년 10월 ~ 현재 : 한국언스쿨링연구소
· 관심분야 : 진로 및 취업, 게임중독, 언스쿨링
· E-Mail : vuddks365@naver.com